



17일 호주 브리즈번 스크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호주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 전반 황의조의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통한의 실점...호주戰 무승부

호주 첫 원정 평가전 1-1...내일 우주백과 대결
황의조 선제골에도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 허용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커루' 호주와 원정 평가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90분을 잘 싸웠지만 마지막 순간을 버티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은 17일 호주 브리즈번의 스크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 친선전에서 전반 22분 터진 황의조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 추가시간 마시모 루옹고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비겼다.

이로써 한국은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치른 5차례 평가전에서 2승3무의 무패행진을 이어 갔다. 한국은 호주와 역대전적에서 7승 11무 9패를 기록했다.

더불어 한국은 지난 2015년 1월 아시안 컵 결승전에서 호주에 1-2로 패했던 아쉬

움을 3년 10개월 만의 재대결에서 앙갚음하려 했지만 무승부에 그쳤다.

한국은 오는 20일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 센터(QSAC)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두 번째 평가전을 펼친다.

벤투 감독은 호주를 상대로 황의조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좌우 날개에 이청용과 문선민을 배치한 4-2-3-1 전술을 가동했다. 남태희가 새도 스트라이커를 맡은 가운데 기성용-정우영이 빠진 중원은 황인범-구자철 조합이 대신했다.

수비진은 홍철-김영권-김민재-이용준이 포백라인을 구성했고, 김승규가 골키퍼 장갑을 끼었다.

'킬러' 손흥민을 비롯해 '중원의 조울사' 기성용은 물론 정우영마저 소집되지

못한 대표팀은 이들의 공백을 백업 자원으로 막는 플랜B로 호주를 상대했다.

전반 21분까지 호주의 볼 점유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몰렸고, 한국은 '슈팅 제도'의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경기 분위기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득점왕에 빛나는 '갯의조' 황의조의 오른발 한방으로 모든 게 뒤집혔다.

황의조는 전반 22분 수비수 김민재가 후방에서 한 번에 길게 보낸 롱패스를 이어받아 단독으로 쇄도한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호주 골대 왼쪽 구석에 선제골을 꽂았다. 한국의 첫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진 '원샷 원킬'이었다.

황의조는 벤투호 승선 이후 2호골이자 A매치 16경기에서 3호골을 작성했다.

황의조의 득점포 이후 한국은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적절히 섞어가며 호주의 중앙과 측면을 흔들며 경기를 뒤집었다.

벤투 감독은 후반전에 황의조를 빼고 석현준을 투입한 뒤 남태희와 함께 투톱을 세운 4-4-2 전술을 가동했다.

한국은 후반 16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때린 프리킥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며 아쉽게 추가골을 놓쳤고, 후반 26분 주세종의 25m짜리 강력한 프리킥도 호주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또 한번 땅을 쳤다.

호주는 추가시간 3분도 다 지난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톰 로기치가 슈팅했고, 이 볼을 골키퍼 김승규가 몸으로 막아냈다. 호주의 마틴 보일이 재차 슈팅한 볼을 김승규가 막아냈지만 또다시 흐른 볼을 루옹고가 기여어 동점골로 연결했다.

한국 선수들은 오프사이드라고 항의했지만 주심은 비디오판독을 거쳐 득점을 인정했다. 한국은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연합뉴스

女축구, U-17 월드컵 8강 진출 좌절

스페인전 0-4 패배 캐나다에 0-2패배...D조 최하위

한국 여자축구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캐나다에 발목을 잡혀 2연패 부진에 빠지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다.

허정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여자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에스타디오차루아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캐나다에 0-2로 무릎을 꿇었다.

개막전에서 스페인에 0-4로 완패했던 한국은 2연패를 당해 D조 네 팀 중 최하위로 밀렸고, 이어 열린 스페인과 콜롬비아가 1-1로 비기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캐나다가 2연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해 가운데 스페인(1승 1무)과 콜롬비아(1무 1패)가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조 2위까지 주는 8강행 티켓을 얻는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북한 등 아시아 3개국을 포함해 16개국이 참가했고, 4개국씩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한다.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 우승 후 2012년 아제르바이잔 대회와 2014년 코스타리카 대회, 2016년 요르단 대회까지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한국은 8년 만에 본선 무대에 올랐지만 초라한 성

적표를 받고 귀국하게 됐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한국은 22일 콜롬비아와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허정재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캐나다에 맞섰다.

허정재 감독은 수비수 고민정(울산현대고)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워 승부수를 띄웠지만 캐나다의 수비벽은 견고했다.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가던 한국은 전반 중반 조미진(울산현대고)과 김빛나(충주예성여고)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거나 골키퍼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후반 들어 캐나다에 공격 주도권을 내주며 먼저 실점했다.

캐나다는 후반 14분 하이테마가 감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한국은 후반 23분에는 김민지와 충돌 과정에서 팔꿈치를 사용한 캐나다의 하이테마가 퇴장당하면서 반전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한국은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후반 29분 라라 카신디안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면서 결국 0-2로 패했다.

/연합뉴스

이다연, 여자골프 LPGA 왕중왕전 역전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 3년차 이다연(21·사진)이 정규 투어 상위권 선수 10명을 초청해 치른 이벤트 대회 LPGA포인트 왕중왕전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다연은 18일 장흥 JNJ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2라운드 합계 12언더파 133타로 정상에 올랐다.

올해 E1 채리티 오픈 우승으로 통산 2승 고지에 오른 이다연은 비록 번외 대회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정상에 오르며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우승 상금은 5천만원.

대상과 신인왕을 손에 넣은 최혜진(19)에 3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 경기에서 나란히 이다연은 보기 하나없이 버디만 4개를 골라내며 3타를 잃은 최혜진을 제쳤다.

이다연과 데뷔 동기가자 이번 시즌 다승왕(3승)에 오른 이소영(21)이 4타를 줄여 2타차 준우승(10언더파 136타)을 차지했다. 일주일 전 시즌 최종전 ADT캡스 챔피언십을 제패한 박민지(20)는 9언더파 63타라는 맹타를 휘둘러 3위(9언더파 136타)로 올라섰다.

지난해 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 프로 전향 이후 첫 우승을 거머쥐어 타이



틀 방어에 나선 최혜진은 13번홀(파5) 트리플보기, 17번홀(파5) 더블보기에 발목을 잡혀 4위(8언더파 139타)로 물러앉았다.

상금왕과 평균타수 1위를 2연패한 이정은(22)은 이번과 72타를 친 끝에 10명 가운데 최하위(2오버파 146타)에 그쳤다.

LPGA포인트 왕중왕전은 이번 시즌에 컷 통과, 톱10 입상, 연속 대회 톱10 입상 등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매겨 상위 8명과 초청선수 2명이 출전해 이틀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김연아 키즈' 시니어 무대도 통했다

차준환·임은수 그랑프리대회 동메달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메달권 기대

김연아를 보고 자란 '김연아 키즈'들이 세계 무대에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다.

시니어 2년 차 차준환(17·휘문고)이 지난달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두 대회 연속 동메달 획득 쾌거를 만든 데 이어 올 시즌 처음으로 시니어 무대를 밟은 임은수(15·한강중)는 18일 막을 내린 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차준환과 임은수의 잇따른 낭보에 한국 피겨계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 피겨는 2014년 김연아 은퇴 이후 쇠락기를 걸었다.

곽민정(은퇴), 김해진(은퇴), 박소연(단국대) 등이 '제2의 김연아'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등장한 최다빈(18·고려대)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2017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10위, 2018 평창동계올림픽 7위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데, 부츠 문제 등으로 올 시즌을 일찌감치 접었다.

이런 가운데 불과 수년 전까지 어린 티를 벗지 못했던 '김연아 키즈'들이 무섭게 성장했다.

차준환은 그랑프리에서 앞서 출전한 쉐린 저시리즈 2개 대회에서 모두 은메달을 획득하며 산뜻한 출발을 했다.

특히 9월 아템 클래식에선 ISU 공인 개

인 최고점인 259.78점을 받아 피겨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와 지난 4일 3차 대회에선 모두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가 그랑프리에서 메달을 받은 건 김연아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쿼드러플 살코, 프리스케이팅에서 쿼드러플 토티프, 쿼드러플 살코 등 총 3개의 4회전 점프를 구사하는데, 지난 시즌보다 한층 완성도 높은 기술력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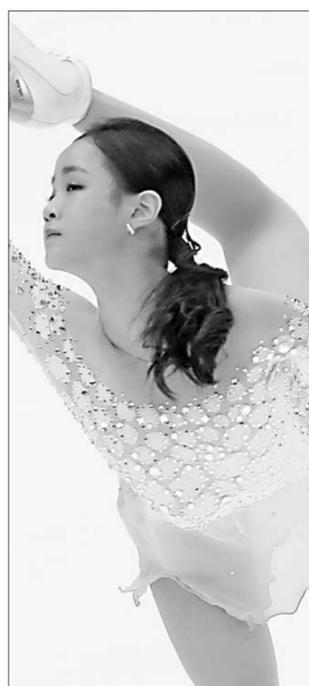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1-2개의 4회전 점프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콤비네이션 점프에 활용하는 등 기술력을 높인다면 메달권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수 역시 올 시즌 무서운 행보를 기세를 보인다. 그는 지난 8월 시니어 데뷔전이었던 쉐린저 시리즈 아시안 트로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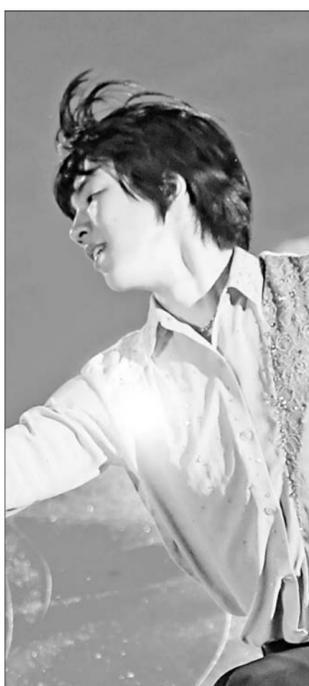
그리고 이달 초 일본에서 열린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데뷔전, 4차 대회에서 자신의 ISU 공인 쇼트프로그램 최고점(69.78점)과 최고 총점(196.31점)을 받았다.

18일 막을 내린 5차 대회에선 프리스케이팅 개인 최고점(127.91점)을 경신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은수가 아직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임은수



차준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임은수와 함께 '트로이카 삼총사'로 불리는 김예림(15·도장중), 유영(14·과천중)도 올 시즌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

김예림은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둬 김연아 이후 13

년 만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했다.

그는 다음 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세계 최고의 주니어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하한솔(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상욱(오른쪽)

하한솔, 펜싱 남자 사브르 월드컵 우승...오상욱 동메달

세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로운 시즌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첫 대회부터 개인전 우승자를 배출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한솔(25·국군체육부대)은 18일(한국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개인전 결승에서 루이지 사렐레(이탈리아)를 15-9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하한솔은 태극마크를 달고 여러 국제대회 경험을 지녔지만, 개인전 메달권에 든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컵에서는 올해 5월 모스크바 대회 8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대표팀의 신흥 강자 오상욱(대전대)을 15-10으로 물리친 데 이어 결승전까지 완승하며 첫 국제대회 개인전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목에 건 오상욱은 준결승에서 패했으나 시즌 첫 대회 메달권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